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이상화 시인이 일제 시대의 암울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로 잘 알려져 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중국 전한 말 절세미인이었던 후궁 왕소군의 기구한 운명을 노래한 구절로 당나라 시인 동방규(東方暀)가 지은 ‘소군원(昭君怨)’이란 시에 나온다. 전자는 빼앗긴 나라에 봄이 왔건만 봄을 느낄 수 없음을, 후자는 오랑캐의 나라에서 꽃 피고 새우는 봄을 맞았건만 마음은 아직도 한겨울임을 읊고 있다. 봄을 느끼기 어려움은 우리 설비업계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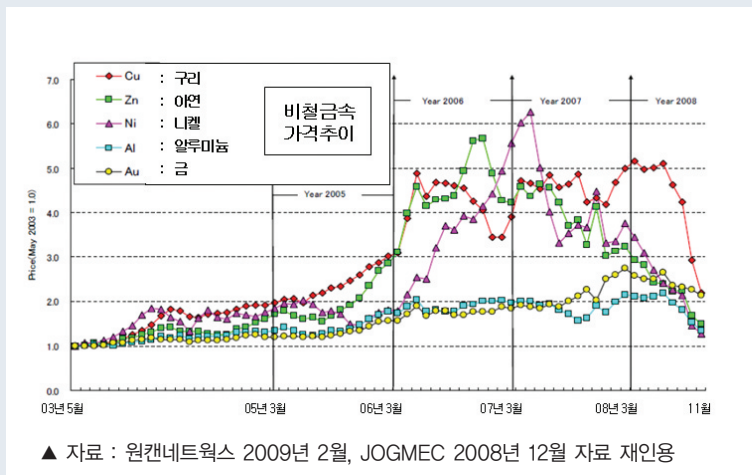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쓰러져 가는 동지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내일은 좋아 지려나 바라지만 어두운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토록 비난했던 저가 경쟁에 이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드는 형국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었던 자재값 인하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다. 정말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선 원자재, 설비자재 가격 동향 등을 살펴 본 후 우리 설비 회원 사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간단히 제안

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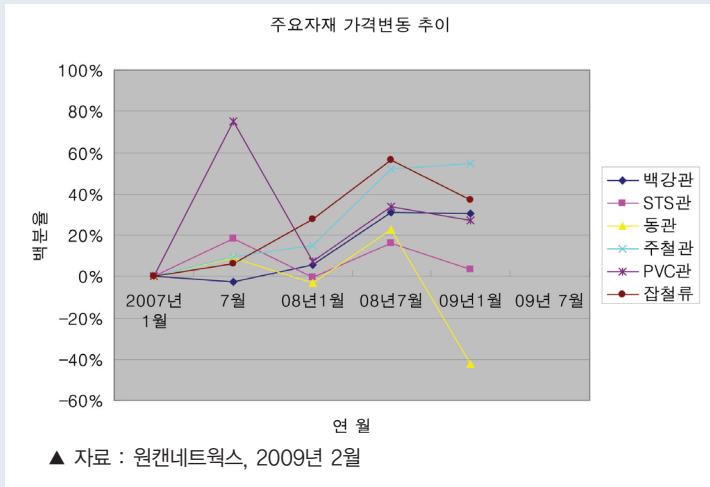
JOGMEC 즉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공에서 지난 연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알루미늄, 니켈, 아연 등의 비철금속은 2008년 이후 공급과잉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중에서 아연은 2011년부터, 니켈은 2012년부터 공급부족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이나 알루미늄은 적어도 2012년까지는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JOGMEC은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이 2006년, 2007



“봄을 느끼기 어려움은 우리 설비업계도 마찬가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쓰러져 가는 동지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내일은 좋아 지려나 바라지만 어두운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토록 비난했던 저가 경쟁에 이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드는 형국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었던 자재 값 인하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다.”

“수입 원자재의 경우 환율 1,000원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평균 40%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율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관은 최근 계절적 수요와 사재기 등으로 다소 오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부 자재는 근소하게나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주철은 수입 문제로 메커니칼타입 일부가 품귀다. 철재류, 스테인레스 제품류는 내림세이므로 구매를 늦추고, XL 파이프 등 계절적 요인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은 선 구매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재는 근소하게나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주철의 경우는 수입 문제로 메커니칼타입 일부가 품귀다. 철재류, 스테인레스 제품류는 내림세이므로 구매를 늦추고, XL 파이프 등 계절적 요인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은 선 구매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향 동구 밖에서 들려오는 봄소식처럼 우리 설비업계에도 ‘춘래불사춘’이 아닌 ‘춘수만사택(春水滿四澤 : ‘사방의 못에 봄비가 가득차다’는 뜻으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함)의 소식이 곧 들려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염원한다.

년에 최고 6배까지 올랐으나 세계경기 악화로 현재는 금을 제외하고 2005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여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철금속 관련 설비자재 가격은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 2005년 수준의 가격으로 수렴해 갈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레 할 수 있다. 지표대로라면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주철관은 50%이상, 강관, PVC관, 잡철류 등도 30% 이상 인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지표와 좀 다르다. 우선 수입 원자재의 경우 환율이 문제다. 1,000원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평균 40%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율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관의 경우는 최근 계절적 수요와 사재기 등으로 다소 오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부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켄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 (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사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